

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, 공공주택 예산집행방식 개편

(해당 실: 예산실, 과: 국토교통예산과, 담당자: 박근형사무관, 044-215-7332)

I. 추진 배경

□ 최근 공사비 인상*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주택공급실적 저조**

* 건설공사비지수 : ('19)117.3 ('20)121.8 ('21)138.9 ('22)148.6 ('23)153.2

** 주택공급실적('20→'23, 만호) : (승인) 45.8 → 42.9(△6.3%), (착공) 52.6 → 24.2(△54.0%), (준공) 51.8 → 43.6(△15.8%)

⇒ 공공부문에서 주택공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

II. 정책 내용

① 역대 최대규모(25.2만호) 공공주택 공급(공공임대 15.2만 + 공공분양 10만)

< 연도별 공공주택 연평균 공급실적 >

(단위 : 만호)

(승인기준)	'03~'07	'08~'12	'13~'17	'18~'22 (A)	'23	'24(B)	'25(C)	전년 대비 (C-B)	직전 5년 비 (C-A)
합 계	15.1	17.5	12.4	15.5	14.2	20.5	25.2	+4.7	+9.7
· 임대	11.1	10.9	11.8	12.9	7.8	11.5	15.2	+3.7	+2.3
· 분양	4.0	6.6	0.5	2.6	6.4	9.0	10.0	+1.0	+7.4

② 공공주택(신축매입임대, 공공분양) 예산집행방식의 획기적 개편

○ 신축매입임대* 집행방식을 1년차 전액 지급에서 건설기간(3년) 동안 분할지급으로 변경 + 공공분양 실소요에 따라 집행비율 조정**

*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

** 착공전 지급율을 45→10%로 줄이고, 공사비 소요가 많은 착공 이후 지급을 상향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①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서민층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

② 집행방식 개선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에도 예산 절감(금년 대비 △3.2조원) → 실소요에 맞는 집행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